

최근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고향의식의 관련 양상*

- 2009~2012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을 중심으로

조 명 기**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장소성의 회복 시도와 장소화의 양상 |
| 2. 장소의 소멸과 공간인식 층위의 무화 | 1) 호출되는 고향 그리고 공간인식 층위의 교호 양상 |
| 1) 장소의 해체와 개체의 부유(浮游) | 2) 공간인식 층위의 고정과 보편화 |
| 2) 대응 주체로서의 관념적 개체 |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족의 일상과 장소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고향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나아가 고향의식의 재구성(혹은 재구성의 실패)이 다중 스케일적 공간인식과의 상호영향관계 아래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살피고자 한다.

장소성의 상실, 이에 따른 개체의 부유와 정체성의 분열, 공간인식 층위의 무화 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소설들은, 고향의 소멸을 전제로 하며 아버지의 부재를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 이 소설들은 장소가 부재할 때 맥락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은 삭제되고 무맥락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적 공간, 개체의 내면공간만을 질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주로 고향으로 호명되는 조선족 농촌지역은 다중 스케일의 공간들과 그 관계망 그리고 장소에 대한 중층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고정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고향은 아버라는 존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위 두 경향의 소설이 공존하고 있는 최근 중국 조선족소설은 고향·아버로 형상화되는 공간적·민족적 구심력과 장소의 상실로 구체화되는 원심력이 충돌·갈등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역설적인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이원적 분리와 충돌은 선명하지 않으며 구심력은 공간층위의 측면에서 다양한 인식과 해석들이 충돌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조선족 소설, 공간인식, 고향의식, 장소, 개체, 아버, 다중 스케일 공간, 제3의 정체성

1. 머리말

세계화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 조선족의 공간 인식지평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¹⁾ 더불어 중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조선족 사회는 상대적으로 장소성에 기반을 뒀으로써 고립되고 폐쇄적이었던 공간

1) 이광일 저, 민족문제연구소 편,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재판, 2004, 186쪽 참조.

적 사유를 개방적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경험하도록 강요받았다.²⁾ 이들은 글로벌, 국가, 지역 스케일 간의 수직적 관계를 하향적인 위계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 스케일³⁾의 공간인식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전통적인 농촌을 재평가·재구성해야 했다. 글로벌 층위의 세계화와 중국 국가 층위의 개혁개방 그리고 지역적 층위의 도시화는 주로 동북 3성에 분포되어 있던 조선족의 농촌지역이 해체되는 동시에 이 장소를 재인식·재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했다.

이에 따라 국민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융합하거나 초월한 새로운 정체성 즉 ‘제3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⁴⁾가 디아스포라 담론과 결합되어 조선족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이질적인 상황에서 제3의 정체성은 두 정체성의 충돌을 모면하려는 교육책이기도 하지만,⁵⁾ 공간인식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인식 층위의 교차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계인 의식, 주변인 의식에서 출발하는 디아스포라적 인식⁶⁾은 공간경계와 공간층위에 대한 민감한 재해석을 예증한다.⁷⁾ 이 인식은 정체성과 국적, 개인과 거주지, 물리적

-
- 2) 이영민·이은하·이화용,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한국도시지리학회, 2013, 58-59쪽 참조.
- 3)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최병두 외,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89쪽.
- 4)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0, ;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95쪽 참조; 김강일·박동훈, 『중국조선족사회의 변연문화특성과 민족공동체 재건』,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엮음,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현실』, 소명출판, 2013, 249-253쪽 참조.
- 5) 백승애, 『중국의 對조선족 정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75쪽 참조.
- 6) 김상철·장재혁, 『연변과 조선족-역사와 현황』, 백산서당, 2003, 5쪽 참조.
- 7) 디아스포라문학은 디아스포라의 세계를 구성하는 국민/디아스포라 체제를 국민 안의 바깥 또는 바깥을 내부화하려는 일종의 공간적 시도라 할 수 있다.(장미영, 『디아스포라문학과 트랜스내셔널리즘(1)』,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453쪽 참조) 물론 이러한 시도가 담론의 본격적인 대상이 된 배경에는 글로벌화가 놓여 있다.

인 이웃과 정체성 사이의 기존 결합 양상을 해체한다.⁸⁾

글로벌 시대의 지역 특히 급격한 해체와 재구성을 경험하고 있는 조선족사회의 지역은 각종 공간 층위의 규정력과 지배력이 교호하는 현상이다. 이때 지역의 중층성·유동성은 다양한 공간층위의 지배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강한 결과물이다.⁹⁾ 하지만 지역의 변화를 상위 공간의 각종 규정력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때 지역은 단일한 공간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타자로 배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글은, 지역은 각종 층위의 공간들에 대한 거대담론과 그것들이 생산한 규정력들의 결과가 실체화되는 동시에 개체가 자신의 삶에 각인하는 일상적 장소성이 교호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개체가 지역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개체의 일상적 장소성¹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장소의 급격한 해체와 상실에 대한 조선족의 인식적 대응을 고향(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고향의식의 재구성(혹은 재구성의 실패)이 다중 스케일적

8) 지그문트 바우만, 윤태준 옮김, 『유행의 시대-유동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오월의봄, 2013, 57쪽 참조.

9)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재하·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를 들 수 있다.

10) 이 글의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푸 투안의 논의에 출발한다. 그는, 장소는 안정·익숙함·영속의 자질을 지닌 구획되고 인간화된 공간인 반면 이보다 추상적인 공간은 개방성·유동성의 자질을 강하게 지닌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9-20쪽, 94쪽, 124쪽 참조. 이 글에서, 장소는 개인의 신체가 확장된 공간 즉 개인이 특정 공간을 자신의 일상이 진행되는 친숙하고 안정된 곳으로 느낄 때의 공간을 가리킨다. 반면 관계적 공간은 특정 공간을 자신 혹은 자신의 일상과 관계 짓는 대신 각종 스케일의 공간과 맺는 사회·경제적 성격이나 위치와 관련지어 사유할 때의 맥락성으로 해석한 공간을 가리킨다. 물론 장소에는 각종 층위의 공간인식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개입한다. 이 글에서 고향(고향의식)은, 조선족 작가들이 장소의 공간화라는 글로벌적 상황을 인식하거나 이 상황과 당위적 가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즉 장소의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차용하는 물리적·인식적 장치이다.

공간인식과의 상호영향관계 아래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최근의 조선족 소설에서 드러나는 다중 스케일적 공간인식과 고향의식의 관계를 개체의 일상적 장소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피는 작업은 다음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하나는, 전 지구적 층위의 글로벌화와 국가(중국)적 층위의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조선족 사회가 급속히 해체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조선족이 공간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적 상황에 대한 공간적 인식과 대응에 있어 한 부류의 조선족 소설은 고향(의식)을 중요한 방편으로 활용한다. 이때의 고향(의식)은 불변하는 '그 무엇'으로서의 원형 혹은 회복해야 할 당위적 고정체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상상적 공간, 글로벌화와 도시화에 대한 대타적인 공간이다. 이는 중국 조선족의 형성 배경과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피거나 중국 여타 소수민족의 소설이나 한국의 소설에서 드러나는 고향의식과 조선족 소설에서 드러나는 고향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조선족 고향의식의 특수성·변별성을 밝히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개체가 일상적 장소를 재해석하고 당위화하는 장소화의 방식이 민족적·공간적 인식이나 자각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유한 그 무엇으로서의 지역성이 탈각된 공간에 고향(의식) 혹은 고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함으로써 일상적 장소성의 회복을 시도하는 일군의 소설들은 고향이라는 상상적이고 다의적인 공간을 각기 다양한 공간인식 층위 예를 들어 글로벌·국가·지역 층위에서 규정하고 이를 고정하려 한다. 이 과정은 개체가 진행하는 장소화 양상이 고향이 지닌 다중 스케일적 성격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전지구적 층위의 글로벌화와 국가적 층위의 도시화의 압박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조선족은 공간적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는지를 조선족 소설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재적 상황 인식과 이에 대한 문학적 재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글은 『2009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부터 『2012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에 실린 소설 중, 공간인식과 고향의식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작품 8편을 텍스트로 삼는다.¹¹⁾

2. 장소의 소멸과 공간인식 층위의 무화

1) 장소의 해체와 개체의 부유(浮游)

8편의 텍스트 중 한 부류의 소설들은 장소의 소멸과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부유 즉 공간인식 고정점으로서의 고향의 상실 그리고 자아의 분열과 공간의 다층적 중첩성에 대한 인식 소멸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화와 도시화를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한국과 여타 외국의 많은 현대소설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아빠트』¹²⁾는 “나는 새고싶었다”(129)는 소망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

11)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은 중국 조선문 잡지, 신문에 실린 문학작품 중 각 잡지사·신문사·출판사 등이 “수작들을 선정하여 묶은”(리여천, 『문학은 문화의 령혼이다』, 『2011 중국조선족문학 우수 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2쪽 참조) 작품집이다. 이 글이 위 작품집을 텍스트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다. ① 위 작품집에 게재된 작품들은 12개의 잡지사·신문사 등으로 구성된 작품추천위원회가 현재 중국 조선족문학에서 나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 작품으로 평가한 작품들이며, ② 이러한 평가를 통해 조선족문학계가 선택한 지향점과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까지 출간된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중 2012년 작품군을 묶은 것이 가장 최근의 것이다. 2009-2012까지의 이 작품집에서 중·단편소설은 모두 45편이 실려 있는데, 그 중 고향의식과 관련이 있는 작품은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8편으로 판단된다.

12) 김서연, 『아빠트』,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1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이하 인용면수만 기입.

며 끝이어서 “부리와 날개가 있는 새라면 어떤 새라도 달가왔을것”이라고 소망의 이유를 부연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이 이유는 당위적인 지향점이 아니라 ‘나’와 고향 연변의 어릴 적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현재의 조건적 상황임이 곧바로 드러난다. 이들은 고향 연변, 아일랜드, 중국 상해, 한국 등지로 뿔뿔이 이동하여 살고 있으며, “메신저를 통해 (중략) 무미건조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 관계의 전부”(132)다. 오히려 이들은 결혼을 위해 아파트를 필요로 하거나, “이렇게 떠도는 삶을 우리 세대에서 종료하고 싶어. 내 아이는 우리와 같이 이런 방랑을 반복하게 하고싶지 않”다고 “각오”(138)하며, ‘나’는 불안한 미래를 “애써 외면하고자 했지만 끝내 외면할수 없는 나의 생활”(142) 때문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한다. 소설 마지막에서야 “내가 세에게서 부러웠던 것, 그건 정말 부끄럽지만 등지였다”(144)고 소망의 실체를 고백한다. 살고 있는 곳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은 “언제나 등지를 꿈꾸며 살고 있다.”(145) 이들이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유로운 이동이 아니라 “등지”나 “아파트”로 상징되는 “정착”(138)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해 “내게도 등지같은 아파트가, (중략) 생겨났음”(144-145)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등지가 장소감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을 예감함으로써 “방랑”의 반복을 암시한다. 어느 공간이든 “등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모의 공간이다. 결국, 『아파트』의 한국, 아일랜드, 상해 그리고 연변은 자유로운 이동과 그 고정점으로서의 고향을 증명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개별 지역성이나 장소성은 삭제되고 정착 불가능과 방랑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의 공간이다. 고향이 장소성을 상실할 때 이 고향과 여타의 다른 공간 모두 “등지” 확보가 불가능한 “방랑”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다양한 공간 스케일에 대한 인식마저 무화된다.

엄마 말처럼 이게 다 개혁개방때문이 아닌가? 개혁개방만 하지 않았

어도... / 아득한 기억속의 고향집 처마밑 제비둥지처럼 우리는 각자 그
 령게 소박한 둥지를 하나씩 가진채 살아갔을지도 모른다.(145)

『아빠트』는 엄마의 입을 통해, 자유로운 이동과 고향의 상실, 둥지 확보 불가능의 원인을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찾는다. 이에 따르면 개혁개방이 불러온 결과는 사뭇 역설적이다. 한중수교를 포함한 개혁개방은 조선족의 국내외에 걸친 자유로운 이동을 유발했고 이에 따라 중국의 고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개혁개방은 고향 상실과 고향 복원·탄생이라는 모순적인 결과를 동시에 유발했다. 이 모순의 공존이 가능한 이유는,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정되는 고향이 아닐 경우 복원되는 고향은 추상적이고 낭만화된 고향 즉 관념적으로 고착되고 관습적으로 주입된 추상적인 고향이기 때문이다.¹³⁾ 이 고향은 “아득한 기억속의 고향집”, “소박한 둥지”로 상상되는 고향, (근)현대가 생산한 심상으로서의 고향¹⁴⁾이다. 고향·장소감 상실과 개체의 부유 즉 장소에 대한 애착과 귀속감의 상실은 고향에 대한 관념적 낭만화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와 연동되어 진행된다.

『유목민들』¹⁵⁾은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자신을 “디지털 유목민”(103)이라고 명명한다. 연변→청도→대구→서울로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더 짠방을 찾아서”(174) 진행되는 이동을 “운명”, “나의 운명, 시대의 운명!”(172)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부유는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아버지가

13) 이런 경향은 21세기 조선족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 고향은 이전 고향의 구체성은 탈각되고 보편성이 강조되면서 모성과 연결되는 공간이다.(이연승·김영미, 『21세기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주제적 특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14쪽 참조)

14)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4쪽 참조.

15) 김서연, 『유목민들』,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2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이하 인용 면수만 기입.

리고 “어떠한 온기도 간직하지 못한채 시체처럼 차갑게 서있을 고향 집”(104)을 그 배경으로 둔다. 고정점으로서의 고향의 부재는 “너무나 쉽게 떠날 수 있”음의 반복을 생산하며 이 이동은 “어렵지 않”게, “홀 짝”, “다소 뜬금없”(이상 170)이 “무목적적으로”(175) 진행된다. 나아가 이러한 부유 상황은 고향을 “동화책 페이지에 고운 빛깔로 스며든 단지 하나의 풍경”(164)으로 재현한다. 아버지와 고향이 남아 있는 『추의 이중 협주곡』¹⁶⁾ 역시 아버지의 부재와 고향의 삭제 상태에서 출발하는 『아빠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협주곡』의 아버지는 고향을 구체화하고 지정해줌으로써 장소감의 회복·재생을 지향케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녀자’를 소외시키는 아버, “울며 겨자 먹기로 닦은 땅을 밟”게 하고 “돈을 보내라는 전화”(191)를 할 뿐 “어떻게 아픈지 물어오지 않”(189)는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가 있는 고향은 “흔적없이 사라진 옛집”으로 “녀자의 고향이 아니”며 따라서 “그리움은 고향 어디에도 없을것”(192)이다. 『협주곡』의 아버지는 고향 부재를 증명하는 아버지일 뿐이다.

2) 대응 주체로서의 관념적 개체

장소성의 상실, 고정점으로서의 고향 상실 이로 인한 공간층위의 무화라는 상황에서 『유목민들』과 『협주곡』은 자아의 분열을 경험한다. 『유목민들』의 ‘나’는 각기 다른 커피숍에서 각기 다른 이름과 각기 다른 커피 취향 그리고 거짓된 휴대폰번호 등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정착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이동을 결심한다. 『협주곡』의 ‘녀자’도 취업한 가게에서마다 달라진 이름, 여권의 가짜 이름, 고향에서만 불리던 이름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여자의 이름”(178)인 “동시에 어느 하나도 여자의 이름이 될수 없”(178-179)는 이름들이다.

16) 박은희, 『추(丑)의 이중 협주곡』,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2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이하 『협주곡』으로 약칭하며 인용 면수만 기입.

이름을 통해 제시되는 두 인물의 자아 분열은 “시대의 운명”이란 표현이 대변하듯 자아에 대한 세계의 절대적 우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어디에 있든 이방인일 수밖에 없”(『협주곡』, 193)거나 환상적이고 관념적인 고향을 상상할 수밖에 없기에 고정점으로서의 장소를 통해 각 공간과 그 관계들에 대한 인식적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놓여 있다. 삼성 노트북이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혹은 “유목민”이라는 리념을 심어”(『유목민들』, 167)준 것처럼 시공간의 압축으로 통해 진행되는 세계화·신자유주의는 개체를 장소로부터 분리시키는 분절화 즉 장소를 ‘텅 빈 공간’으로 탈지역화하는 과정을 동반한다.¹⁷⁾ 자아 분열, 이방인 감정, 관념으로서의 고향 상상은 장소를 상실한 개인이 세계화·신자유주의 혹은 개혁개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발생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목민들』은 “시대의 운명”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 하지만 이 대응은 “시대의 운명”이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개체의 위치에 대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뭐가 되고싶은걸까? 그것은 나를 향해 처음으로 던져보는 나의 주체적인 질문이다. (중략) 내가 리상향이라 믿었던 청도나 대구나 여기 서울이나 끝내는 리상향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라도 그래서 다시 원점에 서있는 내가 되었지만 (중략) / 관념이 되었든 관념에만 머물렀든 내 가슴속의 양 한 마리가 순간 매매하고 낮게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175)

미얀마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라는 회사 “사장의 어명”에 “고개를 푹 숙였”(164)던 ‘나’는 “내 꿈이 아닌거 같아서” “직장을 그만두려”(175) 한다. 시대의 운명에 대한 거부는 ‘나’와 ‘나’의 주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

17) 박정희·조명기, 『엔벤조선족자치주의 공간 변화와 상상력』, 『국제지역연구』 16(3),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가을, 45-48쪽 참조.

어진다. 고향은 이미 “동화책” 속 “하나의 풍경”이 되었고 청도, 대구, 서울 등은 이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내’가 세계와 마주하며 대응하는 지점은 장소를 상실하였기에 세계의 위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공간 즉 ‘나’ 개체가 된다. 따라서 개체의 주체성·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자아 분열과 정체성 해체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질문은 유목을 “정처없이 떠도는 류랑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164-165)게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양 한 마리”를 생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양은 고향의식이 내면화된 것이 아니라 관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즉 『유목민들』이 제시하는 개체의 주체성·정체성은 물리적·심리적 근거나 관계망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오로지 개체 내면공간으로의 퇴행에 의해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꿈”(176)에 가깝다. 이 주체성·정체성은 고정점으로서의 장소를 상실함으로써 고립된 채 유동하는 개체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치라 할 수 있다. 『유목민들』은, 장소와 공간은 소멸되고 오직 현재라는 시간에만 지배되는 개체는 언제나 “다시 원점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3. 장소성의 회복 시도와 장소화의 양상

1) 호출되는 고향 그리고 공간인식 층위의 교호 양상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에는 고향의 소멸, 장소의 상실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관념적 개체로 위치했던 개체에게 장소감을 부여하여 개체의 정체성 나아가 집단적 민족정체성을 회복하려 시도하는 또 한 부류의 소설들이 게재되어 있다. 그런데, 장소성의 회복은 다양한 층위의 여타 공간과 관계 맺으면서 실현된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¹⁸⁾는 중국 흑룡강성의 한

농촌을 고향으로 둔 한 남성이 고향을 떠나 한국에 체류하다 다시 고향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이동은 “돈도 벌고 안해도 찾을 겸 빚을 내어 한국으로” 오는 데서 시작된다. 김용진에게 있어 한국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간 후 연락이 두절된 아내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며 “공사장, 공장, 식당을 두루”(이상 7) 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 두 소망이 좌절되고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순간을 서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소설은 두 가지 소망의 성취 여부와 양상 그리고 그 결과인 고향¹⁹⁾ 회귀의 의미에 주목하기를 요구한다.

소망의 좌절과 위기는 두 조력자 권오순과 김영철에 의해 극복된다. 김용진은 후룡강성 고향의 이웃이었고 지금은 한국의 식당에서 노동을 하는 권오순과 극적으로 조우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를 짝사랑했다는 고백을 들으며, 다친 그를 치료하는 그녀에게서 “안해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한 정”(21)을 느낀다. 권오순은 그가 상실한 아내의 대체자인 셈이다. 김용진과 권오순의 만남 그리고 후룡강성 고향 회귀 암시는 가족의 복원이라는 개인적 소망의 성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순이는 각설이령감 권로인의 삼남매중 둘째였다. 권씨네와 용진이네는 한고향 사람이었다. 다 경북 풍산이었다. 예로부터 탈놀이, 각설이 놀이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 전통이 중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이어져 마을에 농악대가 무어졌다. 일명 각설이패라고도 했다. 그 주역이 오순이 아버지였고 용진이 아버지도 한몫 하였다. (중략) 그때 이 마을은 민속 마을로 이름이 났고 각설이패는 성 소수민족 문예경연에 초청되어 공연

18) 홍만호,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 편집위원회 편, 『2009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이하 「각설이」로 약칭하며 인용 면수만 기입.

19) ‘고향’은 중국 건국 초부터 문화대혁명이 끝나기까지는 동화와 적응의 표상으로 양식화되지만 개혁개방기 이후에는 역사와 문화라는 동질적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재현하는 기제이다.(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148쪽 참조)

을 하기도 하였다.(10)

한반도의 경북 풍산을 고향으로 둔 권오순의 아버지와 김용진의 아버지는 중국 흑룡강성 농촌으로 이주한 뒤에도 농악무를 연희한다. 각설이패의 주역이었던 그들은 흑룡강성의 농촌을 이룬 민속마을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현재의 흑룡강성 고향은 “쓸만한 녀석들은 시내로 해외로 다 튀고” “굴뚝에 연기 나는 집이 절반도 안되”(40)는 마을로 변했으며, “다 죽었다, 다 죽었어. 각설이도, 각설이패도…”라는 탄식의 마을이 되었다. 이때 각설이패 주역들의 자손들이 가족을 복원하여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황폐해진 고향을 이룬 민속마을로 복원하리라는 기대와 연결된다. 따라서 이들의 회귀는 가족의 복원 그리고 고향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반면 김영철은 김용진에게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다라는 또 다른 소망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소망 성취를 위한 모방의 대상, 모델로 상징된다. 김용진은 오순과 자신이 한국에서 위기와 좌절을 겪게 된 이유를 자신들은 “잘못한게 없다, 없어! 이 모든게 우리가 못살기때문이다! 힘이 없기때문이다!”(37)고 설명한다. 그리고 잘살고 힘을 갖기 위해 김영철 등을 학습하고 모방한다.²⁰⁾

김용진과 권오순의 결합과 고향 귀환이 곧바로 고향의 복원을 의미할 수는 없다. 가족의 복원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소망이 고향의 재건이라는 지역 차원의 소망으로 확대 전환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기를 필요로 한다. 김영철은 이 계기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데 여기서 계기는 “당신이 나서 자란 고향을 찾아가보라는”(26) 흑룡강성 아버지의 유언을 가리킨다. “꿈속”(5), “꿈”(10)에 잠재해 있던 그리고 아버지의 구술 속에서 추상적인 형태로만 존재했던 아버지의 한반도 고향과

20)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일삼씨는 정말 알아주어야 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악밭이로 일한다면 잘살지 못할리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와중에 그는 그들을 닮아가고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32)

그곳 연회는 유언과 김영철의 도움을 통해 실제적인 공간과 문화로 현현되어 구체적인 신체를 획득하며 학습된다.²¹⁾ 이 고향은 “조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리산가족의 상봉”(27) 장소이며, “농업이 전망 있는 사업”임을 증명하면서 “고생 말고 돌아가 농장을” 경영하기를 조언하는 교육의 공간이며, 한국의 민속학 교수가 중국 각설이놀이를 가치 있게 평가하면서 흥분하는 하회민속촌의 공간이다.

“인간에게 제일 소중한게 뭘지 아느냐? 얼이다. 얼이 바로 박혀야 뼈대가 있고 뼈대가 있어야 깨끗하게 설수 있는 법이다. 얼을 잃고 코앞의 리해에 쫓겨 사는건 사는게 아니다”는 “아버지가 늘 좌우명처럼 하시던 말씀”(43)은 김용진의 두 소망과 맞닿아 있지 않다. 어릴 적 김용진은 “얼”이나 “뼈대” 등과는 무관하게 각설이놀이를 즐겼으며, 현재 김용진의 두 소망 역시 그러하다.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발설한 좌우명과 각설이놀이에 각인해온 의미망은 김용진에게 있어 실제적인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경북 풍산을 찾기 전의 한국은 김영진에게 있어 “타향”(15)이다. 김영진은 “늘어가는 부모님과 두고 온 아들”이 “못 견디도록” 그림고 “고향마을의 일목일초가 그리”(14)리운 “외롭고 허전”하게 “타향을 떠도는 방랑객”이다. 그는 외로움을 “서울속의 중국조선족타운”·“중국거리”인 가리봉에서 해소한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상 15)이라고 설명되는 곳이며 “고향의 배갈” 등 한국과

21) 고향은 시간적 사후성을 지니는 학습되는 개념인데,(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 출판부, 2007, 26쪽, 31쪽) 한 구술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 젊은 세대에게 있어 선조 한국의 고향은 낯선 공간일 뿐이다.(김민,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변용과 생활민속의 타자성 연구』, 『통일한국인문논총』 58,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13쪽 참조) 이러한 인식은 우광훈 같은 조선족 이민 2세대 작가에게서 두루 발견된다.(최병우, 『우광훈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332쪽 참조) 이때 『각설이』의 아버지는 한국의 고향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중국의 고향과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심상지리의 인식적 공간으로 환기한다.(이성천, 『중국 조선족 문학에 나타난 ‘고향’과 ‘민족’의 표상』,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352-353쪽 참조)

는 다른 중국의 문화가 적용되는 공간이며 “타향살이”, “눈물 젖은 두만강”, “머나먼 고향” 등의 노래를 부르며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이상 16)자고 외치는 공간이다. 김영진이 그리워하는 곳은 흑룡강성의 고향마을이지만, 이 그리움은 고향이라는 구체적인 상대적으로 작은 스케일의 공간인식 층위를 뛰어넘는다. 즉 그의 고향은 “중국거리”, “고향의 배갈”,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 단위의 공간인식 층위와 직결되어 설명되고 이해된다. 이런 층위의 인식 방식은 한국을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김영진이 가리키고 지향하는 것이 개체의 소망이나 개인의 고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라는 공간인식 층위에서 체험되고 설명된다.

하지만 개인적인 소망과 국가라는 공간인식 층위의 결합은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경북 풍산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로 전환된 후 일정한 변화를 맞게 된다.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신체를 획득한 한반도의 고향은 아버지 좌우명의 의미와 각설이놀이의 가치를 재인식, 재발견하는 근거지로 기능한다. 아버지를 통해 획득한 한반도의 고향은, 중국 흑룡강성 고향이 원래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폐기되고 소멸되고 있는 가치·문화를 회복하게 하는 모방의 대상 혹은 대타자로 기능한다. 고향→한국→고향이라는 원순회귀의 구조는 고향→대타자의 발견→고향의 회복을 의미하며, 개체의 소망→지역적 소망이라는 인식적 차원의 확대와 연동된다.

한반도의 고향이 가족을 확인하는 장소로 구체화되고 대타자로 상정됨에 따라, 개인적인 소망은 국가라는 공간인식 층위와만 전면적으로 결합되던 데서 벗어나 두 고향이라는 지역적 공간인식 층위와도 강하게 결속된다.²²⁾ 『각설이』의 아버지는 한국의 고향을 실제적인 장소로 인식하

22) 물론, 지역적 공간인식 층위의 부상이 국가적 공간인식 층위의 탈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 하나의 아버지인 권오순의 아버지 각설이영감이 남긴 두 가지 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나는 한쪽머느리를 아무쪼록 잘 보살피주라는 것이고 하나는 마지막 길을 상여를 타고 가고 싶다는 것”(44)이다. 이 두 유언은

계 만듦으로써,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가적 공간인식 층위가 자기 인식·설명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현상을 제고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김영진이 회귀한 고향은 내재되어 있던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소인데, 가치의 재발견은 개체와 국가의 직접적인 연결에 틈을 내어 지역(고향)이라는 인식층위를 생성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영각소리』²³⁾는 중국의 도시화로 인한 고향 상실이라는 문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연변 내의 도시와 시골이라는 대립 구도 위에 한반도 고향 유산의 거부 혹은 전수라는 문제를 겹쳐놓는다. 소설은 연길에 거주하는 중년의 ‘나’와 아들이 10년 만에 문득 인근의 시골 고향을 찾으려 하면서 시작된다. ‘내’게 있어 시골 고향은, ‘나’를 자신처럼 “감농군으로 만들려는 아버지”(84), 소를 “령물”, “생명”(85)이라 여기는 “아버지처럼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시골에서 살수 없”(101)어 “탈출”(73)을 감행하여 “도시로 도망”(101)가서 “지우려고 발버둥”(70)쳐 온 장소다. 반면, 연길에서 나고 자란 아들에게 있어 시골은 “도시의 소요”에서 잠깐 비껴나 “놀이터”의 “즐거움”(73)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도시↔시골의 선명한 대립을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비인 ‘나’이다. ‘나’는 도시와 시골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어둠”도 “빛의 시작”도 아닌 “새벽”·“간이역”(69),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랐지만 시골도 낯설고 지나온 생의 반을 넘게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렇다고 도시가 익숙해진것도”(78) 아닌 “짧

민족평등의 견지와 민족단결의 강화 그리고 소수민족 경제발전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국 민족정책(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지역연구』 3(4),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1995, 75쪽 참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설은 소수민족 문화와 한족 문화의 관계에 대한 당위적 지향점을 규정한 중국 민족정책과는 달리, 국가 경계를 전제로 한 트랜스로컬리티의 한 양상을 보인다.

23) 구호준, 『내 마음의 영각소리』,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1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이하 『영각소리』로 약칭하며 인용 면수만 기입.

뽕”(76, 82, 93)으로 규정한다. 시골·고향을 “지우려고 발버둥”(70)치지만, ‘나’는 달집을 태우는 농부를 비난하는 아들에게 농부를 위한 변명을 하며 부정확한 기억일망정 시골의 려명대학에 대해 설명한다. ‘나’는 도시와 시골 사이에 놓인 중간자다.

동시에 ‘나’는 선조의 세대와 아들 사이에 놓인 중간자이기도 하다. ‘내’가 아들과 함께 찾은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시골 “동명”이 아니라 선조들의 삶이 각인되어 있는 “장안동”(109)이다.

할배의 아버지는 경상도 어딘가가 고향이라고 했고 그래서 내 기억속에 할배는 짙은 경상도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가끔씩 방언들을 사용하기도 했고 나도 그래서 어려서는 방언들을 많이 사용했지만 시가지로 온 뒤에는 촌놈의 냄새와 함께 그 방언이란 것을 털어버리는데 무척 고민했었다. 경상도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칠만큼의 몸부림 끝에 방언을 털어버렸다고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할배란 말이 불쑥 튀어나가기도 한다. 그것도 결국 내 무의식속에 자리를 틀고있었던 것일까?(71)

장안동은 경상도 방언이 지배하는 장소인데, ‘나’는 도시 연결에서 이 방언을 표준어로 변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경상도방언을 “웃음거리밖에 될수 없”는 “외계인”의 언어, “세상과 어울릴수”(74) 없는 언어, “촌놈의 냄새”가 각인된 언어로 규정한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모방하고 할아버지를 흉내”(93)내지 않기 위해 시골과 경상도 방언을 거부하지만 여전히 도시에도 익숙지 않은 중간자이다. 도시와 시골의 대립적 관계는 표준어와 경상도 방언의 관계와 호응하면서 한반도에 고향을 둔 선조를 소환한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세대적 위치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한반도의 고향·선조가 부정·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과 전수의 대상이 되는 계기는 아들이라는 존재에 있다. 아들은 ‘고향의 봄’을 “물장구를 치면서 신나게”(105) 부르는데, 아들에게 있어 시골·고향은 “어

느 자료실에서” “자료를 뒤지”(110)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구경거리”, “장난감”(77)에 불과하다. “커가는 아들”이 “이미 지웠다고 잊었다고 발버둥쳤지만 그건 묻을수조차없이 내 가슴에서 싹트고있었던 것이 아닐가?”(71) 하는 성찰과 고향 방문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처럼, 구체적인 대상과의 감정적 결탁을 결여한 아들의 노래는 아버지인 ‘내’가 “짹짹”· 중간자에서 적극적인 매개자로 전환되는 계기로 기능한다. 아들의 노래는 새벽꿈에 들었던 영각소리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불렀던”(105) “소에 대한 상식을 제외하고 아버지가 내게 소상히 가르쳐주었기에 “가장 자신있게 할수 있는 노래” 경상도 상여소리에 대한 기억의 환기를 유발한다.

그리고 ‘나’는 “아들놈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만큼의 보행”(87)을 하여 “고달픔”과 “한”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분의 아버지와 형님의 피가 흐르는 곳”(109)에 대한 기억을 전수하려 한다. 즉, ‘나’는 도시↔시골의 대립 위에 고향(장암동과 한반도의 경상도)에 대한 기억이라는 장치를 결합시킴으로써 기억의 적극적인 전수자·매개자로서의 아버지로 전환한다.

『영각소리』의 아버지는 도시↔시골이라는 추상적인 대립을 고향에 대한 세대 간 기억의 문제로 전환한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태도 혹은 기억의 방식을 전환하여 고향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아버지로 기능한다. 하지만, 도시↔시골의 대립이 진행되는 『영각소리』의 연변은 여타의 공간 층위와 연계되지 않은 고립된 공간이다.²⁴⁾ 따라서 경상도 방언과 경상도 상여소리는, 한반도의 경상도와 연결되지 않으며 도시 연결이 거부하고 망각하는 연변 내 시골 고향의 역사적 정체성 즉 도시의 “뛰어난 연기력”과 상반되는 “금방 마음을 읽을수 있”는 “얼굴”(86)이라는 의미

24) “아무리 지구가 하나의 촌으로 되었다고 해도 연변의 농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곡식을 팔만큼의 수준에 도달한것도 아니요 그만한 농업기지를 갖고있는것도 아니지 않는가.”(83)

에서 상대적 성격의 표상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골·고향은 실제하거나 재생가능한 시골·고향이 아니라 오로지 기억을 통해서만 전수되는 고향, “억지로 촌부로 만들수는 없”(73)고 “자신의 길은 자신이 걸어야”(88) 하는 아들이 오늘의 “고달픈 려정”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다시 이곳을 찾거나 이곳에 대한 자료를 뒤적여보기를 기대하는 고향이다. 『영각소리』의 아버지는 감정이라는 기억의 방식으로 후대에게 고향을 전수하려 하지만, 이 같은 태도의 근저에는 도시↔시골이라는 근대의 보편적인 대립 즉 급격한 도시화와 고향의 상실이 깔려 있다. 이때 영각소리와 경상도 방언 그리고 경상도 상여소리는 추상적인 고향을 구체적인 고향 장암동으로 지정하면서 중국 내 여타 도시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제로 기능할 뿐이다.²⁵⁾

25) 『빼스정류장에 핀 아이리스』(김금희, 『빼스정류장에 핀 아이리스』, 중국조선족 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2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는 고향에 대한 기억 전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잘 보여준다. 우선, 고향에 대한 기억의 부재는 개체의 부유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나와 남편은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한다. 그들은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럴바엔 산으로 가”서 “조선식 흙집(을 짓는 데-인용자)에 귀농의 의미를 태반이나 두”(이상 7)지만 이 집은 중국인 목수와 “조선식 삼량가구” 속에서 “어정쩡하게 서있”(8)을 뿐이다. 기억되는 고향이 없기에 그들의 고향 복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의 귀농은 도시↔시골이라는 보편적인 대립으로 귀결된다. 남편은, “도시는 지역 물론 나라 물론 하고 공동된 자기들만의 어떤 냄새와 흐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회지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6) 하지만 “인간다운 삶”(16)을 찾아온 시골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다가 다시 도시로 이주한다. 반면 ‘나’는 “도시에서는 시골이 그립고 시골에서는 도시가 아쉬운”(31) 인물이다. 기억하거나 재현해야 할 고향을 갖지 못한 이들은 도시↔시골의 대립을 상호비교됨으로써 보편화·추상화된 두 공간의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의 경험은 이들 집을 방문한 도시사람들이 보여주는 귀농에 대한 낭만적 접근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나아가, 도시↔시골의 대립은 ‘나’가 관찰하는 시골 한족 소년 상에게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아버지와 고향이 알려지지 않은 상은 도시 혹은 “도시스런 어떤 분위기”(20)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떠나며 ‘나’는 상의 이동에 적극 동의한다. 결국, 기억해야 할 고향을 상실한 ‘나’와 남편 그리고 상은 도시와 시골의 대립을 추상화하면서 부유한다. 이는 『영각소리』의 아버지가 장

2) 공간인식 층위의 고정과 보편화

『날아라, 룡! 룡! 룡!』²⁶⁾은 고향으로의 회귀와 고향 가치의 재발견 그리고 가치 재인식 계기로서의 아버지를 서사의 뼈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각설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가치 재발견의 방식과 공간인식적 층위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룡!』의 주인공 ‘나’는 장춘의 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북경 진입과 연변 회귀라는 갈림길에 놓인다. 연변은 “당신의 딸이 돌아와서 중학교 수석선생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아버지와 연결된다. 하지만 “조선족학생 중 한명도 연변으로 돌아간 애가 없”는 것처럼 ‘나’ 역시 북경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도시에 있다보면 자연히 더 큰 도시를 지향”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소득격차”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나라 수도 북경은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이기 때문이다. 이 선택은 연변과의 단절을 의미한다.²⁷⁾

‘나’는 북경 선택을 도시화와 연결한다. 중국의 가파른 도시화율,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조선족의 도시화율을 “우리 민족은 이제 호호탕탕하게 대륙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있”(이상 166)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북경 선택 역시 이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인다. 시골과 도시의 위계에 대한 인정·편승은 연변과 한국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는 “1990년대 이 사회의 거대한-한국로무의 붐, 수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드림의 유혹에 끌려 한국으로 물러갔다”고 설명함으로써, 연변과 한국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설명 안에 자신을 편입시킨다. “나

암동이라는 고향을 통해 아들의 정박을 기대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각소리』의 구체화 기제들(영각소리, 경상도 상여소리)은 도시가 사후적으로 편집하고 각인하여 대타적으로 재구성해낸 고향의 표상에 가깝다.

26) 박초란, 『날아라, 룡! 룡! 룡!』,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09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이하 『룡!』으로 약칭하며 인용 면수만 기입.

27) ‘나’의 아버지는 “안 돌아와 살겠으면 다신 오지두 말거라”고 말하며 ‘나’는 “아버지와 나 사이의 가느다란 끈이 끊어지는 소리”(이상 166)를 듣는다.

는 늘쌍 자신이 한국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여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면 환상을” 갖기도 하고, “촌스러운 연변말” 대신에 “어색하게 한국말을” 하기도 하며 “한어를 잘할 수가 없”는 것처럼 “떠듬거리며” “연기를” 함으로써 “자신을 중국사람중에서 빼내어버”(이상 171)리기도 한다.

연변은 배추 두 포기 때문에 고모가 목숨을 잃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지만, 이는 연변이 북경과 한국(때로는 일본)에 의해 중층적으로 소외된 타자적 공간임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퉁!』은 연변의 이러한 상황을 용정의 “온통 두터운 먼지투성이인 용드레우물”(164), “말라버린 우물”(163, 165) 용의 실종 등으로 형상화한다. 용정의 현재적 상황과 성격은, 북경과 연변 사이에 형성된 위계와 이 위계에 동의하는 ‘나’에 의해²⁸⁾ 그리고 한국과 연변 사이에 형성된 위계와 이 위계에 동의하는 어머니에 의해²⁹⁾ 정의된다. 쓰러진 아버지처럼 메말라버린 용정은 끊임없이 북경이나 한국에 의해 설명되고 소외되는 공간이다.

고향으로의 귀환은, 어머니·한국과 ‘나’·북경에 의한 중층적인 소외로부터 용정을 구조해내는 방식이 세대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한국이 살기 좋다고 하는 엄마의 말투는 돌아온지 한달만에 아예 연변말로 돌아”오는데 ‘나’는 그때서야 “이제야 엄마가 돌아왔다!”고 인정하며 “엄마가 보고싶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 하여” “후- 웬지 크게 안도의 한숨”(이상 175)을 내뿜는다. 연변어와 한국어의 구분을 전제로 어머니 회귀의 완전성을 가늠할 때, 연변과 한국은 연계된 공간이 아니라 명확히 구별되고 이질적인 공간이 된다. 한국과

28) ‘나’는 용정 대신 북경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시 방문한 용정에서 한산하게 운행되는 인력거를 타고 가다 “인력거를 타보려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법석대”는 “북경”을 떠올린다.

29)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노동하는 ‘나’의 어머니는 귀국을 계속 연기하다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데, 한동안 한국어로 한국과 연변을 비교한다. “한국은 얼마나 깨끗하다구 그러냐? 여기는 넘 지저분하다. 어제 연길 서시장에 갔었는데 왜 그렇게 눈 감기냐? 살기는 그래도 한국이 좋은 것 같다.”(175)

연변이라는 공간이 어머니의 언어를 결정짓는데, 연변어의 회복은 연변으로의 완전한 귀환을 증명하는 징표인 셈이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유도, 여전히 연변이라는 공간이 언어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언어에 대한 공간의 장악력을 어머니가 증명함으로써 연변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성취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을 다니는 내내 한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172)고 고향·아버지와 의 끈을 끊어버리고 북경으로 진입한 ‘나’는 북경의 풍부한 문화를 즐기지 못한다. “삼환로변의 북경의 아빠트의 나의 방”(180)에서 “돈 버는게 험한줄 아냐?”는 어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콩크리트숲 속에서 나는 말라버”린 “사막이 되어가고있다.”(이상 165) ‘나’는 고향인 용정을 떠나 북경으로 진입하지만 용정이 메말라가듯 ‘나’ 역시 메마른 사막이 되어 간다. 지리적으로는 북경에 진입하고 용정과는 소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간적인 위계구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오히려 용정과 상황적으로 긴밀히 결속되어 있다. 북경의 ‘나’는 조선족 옛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촌스러운 연변말을 아주 호기로운 근사한 말로”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정말 중국사람이야?!”라는 질문에 “그럼! 중국조선족”, “중국사람”(이상 173)이라고 인정한다. 연변어를 부정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사용에 미숙한 양 가장하면서 한국사람이기를 소망했던 ‘나’는 대도시/시골(수도/지방), 한국어/연변어 사이의 위계를 재조정한다. 아버지에 대한 재인식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통증에 두눈을 감고 이마를 찡그리고있는 아버지, (중략) 우물같이 끈이 끊어진 내 가슴속 그 자리에서 솟아나고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세월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릇을 가시던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키를 잡고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온힘을 다해 이 가정이란 배를 이 세상의 풍랑속에서 똑바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을.(177)

“우리 네 식구는 제각기 흩어져 그 세월을 견디고 있었”으며, 용정에 “혼자 남겨진 아버지는 (중략) 엄마도 나도 오빠도 모두가 집으로 돌아오”(172)기를 기다린다. 아버지와 용정은 외부의 일방적인 영향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메말라버린 인물과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마을과 도시, 국가가 나름대로 “다 멀미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두 경제가 말이 아니”고 “한국두 돈이 떨어져 말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중국이 참 대단하”다며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두 개의 축이 되었기에 (중략) 인제는 우리두 중국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세계의 경제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래야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이”(이상 177)기 때문이다. 아버지·용정은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 그리고 1990년대 “기회의 나라” 한국으로 몰려가는 “흐름”(169) 속에서 가족 해체와 정체성 붕괴를 경험하는 인물·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용정을 대면한 후, ‘나’는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 즉 해체된 가족을 지탱하고 회귀하게 만들며 나아가 이들에게 대처의 방식을 제시하는 존재는 병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메말라버린 용정이라고 재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재인식이 용정으로의 귀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머니의 회귀가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귀환이라면 ‘나’의 회귀는 일시적인 방문이다. 『각설이』의 아버지가 한국의 고향이라는 대타자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흑룡강성 고향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만든 데 반해, 『룽!』의 아버·용정은 중층적 소외와 타자화 속에서 가족과 고향의 가치를 유지해온 존재이기 때문이다. 『각설이』의 아버지가 제공한 경북 풍산이라는 모방의 대상은 김용진으로 하여금 중국 흑룡강성 고향을 모방행위가 적용되어야 할 공간으로 재인식하게끔 유도한다. 하지만 『룽!』의 아버가 제공하는 것은 용정이라는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과 고향이 지닌 가치의 숭고함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인식은 이중적 소외와 타자화에 맞설 수 있는 기제가 아니라 ‘나’라는 개체에 내면

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똑똑히 보거라! 너 자신을”이라는 아버와 용정의 명령은 북경 지하철 속의 ‘나’를 “멍청해진 내 몸은 간 곳 없고 한 마리의 작은 은빛의 아름다운 룡”(182)으로 재인식하게 만든다.

어머니의 귀환은 용정이라는 공간적 고향을 통해 완성된다. 반면, ‘나’의 귀환은 공간적·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체성의 차원 즉 아버와 용정에 각인되어 있던 집단 기억과 소망을 내면화·개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와는 달리 아랫세대인 ‘나’에게 있어 돌아갈 고향은 이미 소멸되었고 고향과 아버의 숭고한 가치는 환상의 방식으로 남았을 뿐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개체와 국가의 직접적인 결합에 틈을 내어 지역·고향이라는 사이공간을 제공한 『각설이』와 달리, 『룡!』은 고향의 소멸과 이로 인한 개체의 부유(浮游) 그리고 정신적 고정점으로서의 아버·고향의 가치를 응변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때³⁰⁾ 아버·고향 가치의 내면화·개체화는 개체 정체성 인식의 구심점 형성을 의미한다.³¹⁾ 동시에 장소의 소멸 즉 공간인식 층위의 고정점 부재와 이로 인한 공간감의 만연, 개체의 부유라는 현상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각설이』의 공간인식이 유동적이고 탄력적이라면 『빨간 느티나무』³²⁾가 보여주는 공간인식은 완고하다. 『느티나무』가 다양한 공간층위가 개인사에 중층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공간인식의 완고함은 지배적인 공간인식 층위의 절대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경직성으로 이어진다.

30) 이-푸 투안에 의하면, 개체는 자신과 장소의 정서적 유대 혹은 장소애를 의미하는 토포필리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해나간다.(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21-59쪽 참조)

31) 제프 말파스, 김지혜 옮김,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15-18쪽 참조.

32) 김영자, 『빨간 느티나무』,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11년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이하 『느티나무』로 약칭하며 인용 면수만 기입.

아버지 없는 자식을 의미하는 “메데”(沒爹)의 삶이 중국 국가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아 고향 류수천 위에서 반복된다. 순이의 남편은 결혼 15일 만에 6·25전쟁터로 떠나 돌아오지 않으며 딸련화의 남편은 결혼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돈 벌러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순이의 남편이 지원군으로 참전한 후 10년 동안 생사에 관한 소식이 없어도, 류수천 사람들은 순이를 “전선지원 모범안해”(11)로 칭송하고 “모범상장”(12) 수여함으로써 “붉은 꽃을 단 집에서 붉게만”(28) 살아가는 “현역국인의 안해”(16, 21)이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순이가 불륜과 임신을 통해 남편·아버지의 부재를 드러냈을 때 류수천 사람들은 “화냥년”(27)이라 비난하며 “똥 묻은 개취급을 한다.”(28) 한편 “남들앞에서 한번 보란듯이 멍멍 큰소리치며 잘살고싶었고 메데란 소리에 억눌려 사는 안해를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보고” 싶어 “남들이 모두 출국길에 오늘 때 철구(련화의 남편-인용자)도 가족을 위해”(이상 32) 한국행 밀항선을 탄다. 하지만 20년이 넘도록 철구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동안 련화가 딸 순화를 낳을 때 류수천 사람들은 “메데가 또 메데를 낳는”(9)다고 조롱하면서 “대를 이어 아빠없이 사는 순이네를 아주 메데네”(32)라 칭한다.

류수천은 6·25 참전, 한중수교 등 중국 국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서 개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현장이다. 순이를 비난할 때 사용되는 “화냥년”, “잡귀신”(31) 그리고 련화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메데”는, 류수천 자체에 내장되어 있던 당시 보편적·민족적 윤리의식이 현역군인 혹은 문화대혁명으로 표상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호명 방식이다. 이 공간에서는 아버지 유무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아버지 없음은 비난과 외면³³⁾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이곳은 “구데기 밑살 같은 년이라고 비난”(29) 받아도 순이와

33) “류수천사람들은 아침전에 그녀(순이-인용자)를 길가에서라도 만나면 하루종일 되는 일 없고 재수움 붙었다고 투덜댄다는걸 그녀는 알고 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8)

련화가 남편·아버지의 귀환을 소망하며 삶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일상의 장소다.³⁴⁾ 남편·아버지의 귀환이라는 소망은 붉은 끈을 매며 소원을 기원하는 느티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 뚜렷이 형상화된다. “순이와 딸에게 이 느티나무는 신앙이었고 희망이였으며 기다림이였고 미련이였으며 삶의 전부”(33)일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큰 느티나무에 자신이 흡수되어 버리는듯”(9) 할 정도다. 느티나무는 순이와 련화가 대를 이어 아버지는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이면서 남편·아버지의 귀환을 소망하는 매개체다. 두 여성에게 있어 느티나무·류수천은 아버지의 부재와 아버 귀환의 소망이 공존하면서 반복되는 장소다.

한국으로 유학 간 순화가 어머니 련화에게 한국인 남성과의 재혼을 주선하고 련화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이 이 소설 서술의 출발점이다. 남편·아버지의 회복은 류수천으로의 귀환을 통해서가 아니라 “메데”가 한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성취된다.³⁵⁾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고향을 등지는 행위는 아버 유무를 질문하는 류수천 사람들의 인식과 동일한 층위에서 진행된 것이다. 남편·아버지의 귀환이라는 소망 자체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는 없으며 류수천에서의 소망 성취 불가능만이 문제가 된다. 류수천에서 전개된 남편·아버지 유무에 대한 질문이 중국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그 배경에 두고 있다면, 한국을 남편·아버지 부활의 공간으로 소망하고 상정하는 것 역시 국가를 지배적인 공간인식 층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성의 수난사가 전개되는 류수천이라는 고향은 아버 유무에 대한 질문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질문에 대한 대답 내용에 따라 칭송과 비난이 집단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이다.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서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고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아버가 실종되었던 공간인 한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아버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려는 행위는 아버 유무에 대한

34) “순이는 메테를 데리고 “날 잡아먹수” 하고 류수천을 떠나지 않았다.”(30)

35) “련화야, 이제 시집 가져든 애기 하나 낳으렴. 애비 있는 아이를.”(35)

질문이 여전히 유효한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느티나무의 제거, 고향의 부정은 아버지의 유무를 질문받는 개체의 “절규”(35), 아버지를 대답할 수 있는 국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느티나무』는 고향이라는 지역, 개체 삶의 현상이 국가 이데올로기와 보편적 도덕률, 개체의 욕망³⁶⁾ 등이 뒤엉켜 충돌·경쟁하는 공간임을 재현하면서도, 개체에 대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질문을 답습하면서 여전히 국가라는 공간인식 층위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이 재현해낸 것은 국가 층위 인식의 지배력으로 인한 개체의 고통인 반면, 이 소설이 제시하는 것은 지역 혹은 장소에 대한 국가 층위 인식의 막강한 지배력이다. 이 같은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각설이』의 아버지와 달리 『느티나무』의 아버지는 각종 층위의 공간이 끼치는 영향력들의 충돌·경합을 개체의 차원에서 조율하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부재하기에 추상화된 아버지 즉 현재 공간 인식에서의 지배구조가 이식되기 쉬운 아버지 때문이다.³⁷⁾

4. 맺음말

최근의 중국 조선족 소설은 장소성의 상실 유무에 따른 공간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고향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소설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36) “순이는 희자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너무나 기대며 살고싶은 남자의 가슴이었다.”(23)

37) 이로 볼 때,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은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적일 수 있다는 근거에도 불구하고(Jacob Levy, *Multiculturalism of Fe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69-97) 제3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모순적인 요구에 대한 교육책임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가 조선족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면서도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요구할수록 조선족의 국가의식은 강해졌기에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구심력은 비례하는 셈이다. 따라서 제3의 정체성은 그 이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통분모로 갖고 있다. 이 소설들은 장소성의 상실, 이에 따른 개체의 부유와 정체성의 분열, 공간인식 층위의 무화 즉 글로벌·국가·지역이라는 공간인식 층위의 해체 등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고향의 삭제나 낭만화는 고정점으로서의 장소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인식층위의 부재 그리고 개인 정체성의 해체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 다중 스케일의 공간적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라 개체가 주목하는 공간은 개체의 내면공간 혹은 개체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사적 공간이다. 물론 이 공간 역시 다중 스케일의 공간적 접근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면공간이나 사적 공간을 제외한 다양한 (층위의) 공간들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다중 스케일적 접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장소가 부재할 때 맥락적이고 다층적인 공간은 삭제되고 무맥락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적 공간, 개체의 내면공간만을 질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소멸 유무와는 무관하게, 주로 고향으로 호명되는 조선족 농촌지역은 다중 스케일의 공간들과 그 관계망 그리고 장소에 대한 중층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고정점이 되고 있다. 즉 장소로서의 고향은 다양한 층위의 공간이 중층적으로 수렴되는 공간인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을 견인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고향은 아버라는 존재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아버지는 이미 해체되었거나 해체 중인 고향을 다중 스케일의 공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혹은 부재의 방식으로 등장하는) 아버지는, 한국 혹은 한반도의 고향을 모방의 대상이나 대타자 혹은 기존 국가의 대체자로 발견하도록 매개하는 아버이거나, 도시가 생산하는 낭만적인 시골에 구체적인 역사를 기입하고 이를 전수하고 학습시키는 아버지다. 이 아버지는 고향을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층위나 글로벌 층위에서 장소화·재맥락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아버지는 개체적 기억과 지향의 문제를 집단적·공적 기억과 지향의 문제로 전환하며, 특정 층위의 기억과 앓을 지속케 하는 존재다. 이 아버지는 작가가 부가한 성격에 따라 고향의식과 공간인식

의 관계 양상을 다르게 인식한다. 『각설이』는 아버지의 한국 고향을 통해 중국의 고향을 재발견하는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의 양상을 보인다. 반면, 『영각소리』는 소멸된 고향의 간접적인 체험과 전수라는 유희로를 통해 도시↔시골의 대립이라는 국가 층위와 글로벌 층위에서 공히 보편적인 추세를 겨냥하는 각 공간층위의 동질화를 노정한다. 『느티나무』는 국가적 공간층위의 위력을 웅변하며, 『룽!』은 개체에 내면화되는 장소성과 소멸되는 공간성의 공존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최근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의 중국 조선족소설은 고향의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는, 조선족 사회의 물리적·정신적 해체의 개체적 경험을 고정점의 부재 그리고 개인화된 사적 공간의 중시 등으로 토로하는 경향이다. 이 소설들의 인물들은 장소의 소멸과 공간 속에서의 부유로 축약할 수 있는 근대 개체의 보편적·일반적 삶의 양태를 동일하게 경험한다. 이 인물들은 자신을 장소를 상실한 근대의 보편적 인물 즉 공간인식 층위를 거시화하여 고정된 관념적 개체이다. 또 하나는, 장소로서의 고향과 아버지를 호출함으로써 나아가 한국 특정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고향·아버지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재현함으로써, 물리적·정신적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개인정체성의 고정점을 제공하려는 경향이다. 이때의 고향은 국가 혹은 시골, 한국의 특정 지역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고 해석되는 공간인 동시에 특정 해석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결국, 위 두 경향의 소설이 공존하고 있는 최근 중국 조선족소설은 장소의 상실로 구체화되는 원심력과 고향·아버지로 형상화되는 공간적·민족적 구심력이 충돌·경합하는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준다. 역설적인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이원적 분리와 충돌은 선명하지 않으며 구심력은 공간층위의 측면에서 다양한 인식과 해석들이 충돌하는 과정과 연동되어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중국조선족문학우수작품집편집위원회 편, 『2009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 _____, 『2011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 _____, 『2012 중국조선족문학 우수작품집』,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 김면,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변용과 생활민속의 타자성 연구」, 『통일한국인문논총』 58,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2014, 5~33쪽.
- 김강일,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전남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0, 1~26쪽.
- 김강일 · 박동훈, 「중국조선족사회의 변연문화특성과 민족공동체 재건」,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엮음, 『연변조선족의 역사와 현실』, 소명출판, 2013, 249~284쪽.
- 김상철 · 장재혁, 『연변과 조선족-역사와 현황』, 백산서당, 2003, 5쪽.
-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131~157쪽.
- 김태준, 「고향, 근대의 심상공간」,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14쪽.
- 리여천, 「문학은 문화의 령혼이다」, 『2011 중국조선족문학 우수 작품집』, 후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4, 1~2쪽.
- 박배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에 대한 공간적 접근」, 최병두 외,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57~97쪽.
- 박정균, 「중국조선족 정체성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1, 1~300쪽.

- 박정희 · 조명기, 『엔벤조선족자치주의 공간 변화와 상상력』, 『국제지역 연구』 16(3),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가을, 41~59쪽.
- 백승애, 『중국의 對조선족 정책』,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7, 1~137쪽.
- 이광일 저, 민족문제연구소 편,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재판, 2004, 186쪽.
- 이성천, 『중국 조선족 문학에 나타난 ‘고향’과 ‘민족’의 표상』, 『한국언어 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347~371쪽.
- 이연승 · 김영미, 『21세기 중국조선족 시문학의 주제적 특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07~327쪽.
- 이영민 · 이은하 · 이화용,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 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한국도시지리학회, 2013, 55~70쪽.
- 이재하 · 김석주,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지역성 변화에 관한 세계체제론적 분석: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461~475쪽.
- 장미영, 『디아스포라문학과 트랜스내셔널리즘(1)』,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442~460쪽.
- 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지역연구』 3(4),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1995, 73~98쪽.
- 최병우, 『우광훈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23, 한중인문학회, 2008, 317~339쪽.
-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 출판부, 2007, 26쪽, 31쪽.
- 이-푸 투안, 구동회 · 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19~20쪽.
- _____, 이옥진 옮김, 『토폴로리아』, 에코리브르, 2011, 21~59쪽.
- 지그문트 바우만, 윤태준 옮김, 『유행의 시대-유동하는 현대사회의 문화』,

오월의봄, 2013, 57쪽.

제프 말파스, 김지혜 옮김,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15~18쪽.

Levy. Jacob, *Multiculturalism of Fe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69~97.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Space and the Awareness about the Home village Shown in the Recent Novels by the Ethnic Koreans in China

Cho, Myung-ki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way of reconstructing ethnic Koreans' home village as the space that represents their place and daily life and to examine how the reconstruction of their awareness about the home village comes to unfold under the mutually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the multi-layered spatial recognition. The ethnic Koreans' rural area which is mainly called their home village is becoming a fixed point where they perceive and experience the multi-layered spatial influence of the multi-scaled spaces, their relationship network and the place. In other words, the home village as a place is the location where various layered spaces converge in a multi-layered structure and the responses to the convergence are driven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home village is closely combined with the person called the father. On the contrary, novels that presuppose the disappearance of the home village have the absence of the father as a common denominator. These novels commonly show the loss of the sense of place, the individuals' resultant drifting, their confusion of the identities, the disappearance of the spatial awareness layers, etc. When the place is absent, the

contextual and multi-layered space is deleted; only the questions about the individuals' inner space can be asked against its noncontextual background.

Key Words : ethnic Korean novel, awareness about home village, place, spatial, multi-scaled spaces, the third identity

■ 논문접수 : 2016년 3월 18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8일

■ 게재 확정 : 2016년 4월 21일